



資料

- 필리핀, PHILPHOS의 민영화 -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370 May-June 1999 >

오늘날 PHILPHOS처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비료생산업체는 별로 없다. 즉 국내외의 판매부진, 누적된 부채 및 수출시장의 잠정적인 침체로 장기간에 걸쳐 인산생산업체의 운명에 상당한 희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 최고책임자의 부임과 민영화 후의 새로운 자본투입 전망은 보다 밝은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검토해 본다.

Philippines Phosphate Fertilizer Corporation(PHILPHOS)는 아세아에서 가장 큰 인산비료 생산공장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생산업체중의 하나이다.

이 공장단지는 Leyte의 Isabel에 있는 435ha의 Leyte 공업개발단지에서 18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National Development Co.(NDC)와 나우루 정부사이의 합작업체로 설립된 동 비료공장단지는 황산 생산능력(495,000t/a)과 인산 생산능력(396,000t/a), 황산암모늄 생산능력(169,000t/a) 및 NPK 생산능력(1,160,000t/a)을 가진 4개 단위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HILPHOS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이웃 동남아 시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1997년 이 지역의 800만톤이 넘는 총 비료소비량중에서 인산비료의 수요는 필리핀의 140,000톤을 포함하여 총 16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모든 비료소비량의 꾸준한 증가는 1997년과 1998년의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으



하였는데 나우루정부가 동 매각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져 입찰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러나 약 460억페소(\$11억8천만)에 달하는 PHILPHOS의 부채는 이와같은 제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오랜기간에 걸쳐 벌어진 상황속에서 최근에 필리핀 대통령 조세프 에스트라다는 민영화작업을 서두를 것을 명령하였다. 예산관리청장 벤자민 디오크노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지만 정부는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PHILPHOS는 조세프대통령이 1998년 7월 취임당시 민간부문에 팔겠다고 공약한 11개 국영기업체중의 하나로써 지금까지 팔린 것이 없다.

제1단계

또한 매각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들중에는 Philippine Associated Smelting and Refining Corp.(Pasar)이 있는데 이회사는 1980년대초에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250억페소(\$6억4천6백만)의 적자가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정부는 Pasar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670억 페소를 조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회사 매각입찰을 4월말경이나 5월초에 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몇몇 일본회사와 유럽회사들이 Pasar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국내회사들도 입찰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Pasar는 동제련의 부산물로 약 450,000t/a의 황산을 생산한다. PHILPHOS는 주요고객이며 약 400,000t/a를 사들이고 나머지 50,000t/a는 국내업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Pasar의 매각입찰이 끝나면 민영화 대열의 다음 차례는 PHILPHOS가 될 것이다.

PHILPHOS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설이 본격 가동될 때에 태국에서 NPK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금년초에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쳤는데 그것은 금년에 베트남당국이 NPK 수입을 금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 밑에서 PHILPHOS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일어설 결심을 하였고 현재는 수출용 DAP(주로 베트남시장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을 위하여 인산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제까지 크게 위축되었던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으로 PHILPHOS가 하고 있으므로 뜻있는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인 것이다.